

살리는 손, 병 들어가는 몸

<중증외상센터>로 살펴보는
의료 종사자의 현실



넷플릭스 드라마 <중증외상센터> 속 주인공은 환자를 보자마자 증상을 꿰뚫어 보는 천재적인 감각으로 생명을 살려낸다. 여기에 의료 현실의 부조리한 측면을 거침없이 해결하며 시청자들에게 짜릿한 통쾌함을 선사한다. 하지만 카메라 뒤편의 현실은 처절한 사투가 벌어지는 전쟁터에 가깝다. 촌각을 다투는 중증 환자를 살리기 위해 의료진은 24시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한다. 타인의 생존을 위해 매일 한계에 도전하는 중증외상센터 의료 종사자들의 고단한 직업병과 그 이면의 현실을 짚어본다.

글 공주영



©넷플릭스 <중증외상센터> 포스터

#01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사투

대형 연쇄 추돌 사고로 실려 온 응급 환자,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도 주인공 백강혁은 어려운 장기 이식 수술로 환자의 생명을 구한다. 이송 중인 헬기라는 열악한 상황에서도 주인공은 환자의 생사가 걸린 수술을 단행하고 또 성공한다. 이처럼 드라마 <중증외상센터>에서는 생명이 위급한 응급 환자들을 '골든타임' 안에 치료하느라, 고군분투하는 의료진의 긴박함과 의료 시스템의 한계를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카메라 뒤 우리의 실제 현장은 드라마보다 훨씬 더 처절하다.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 추락, 산업재해 등으로 생명이 위독한 중증외상환자를 상대로 소생부터 수술까지 치료하는 최종 의료기관을 권역외상센터라고 부른다. 드라마 속 주인공은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나 기적을 만들지만, 현실의 권역외상센터는 당장 환자를 수술할 의사가 없어 발을 동동 굴러야 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권역외상센터는 전국에 단 17곳뿐이며, 그중 절반이 넘는 9곳(53%)은 전담 전문의 수가 10명 미만일 정도로 심각한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이처럼 가혹한 환경이지만 헬기 이송부터 즉각적인 응급 수술로 이어지는 전문적인 외상 진료체계가 현장에 뿌리를 내리면서, 다행히 여러 성과를 기록하기도 했다. 2026년 1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5년 30%를 상회하던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은 2023년 9.1%까지 떨어졌다. 이 고무적인 성과는 결코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 365일 24시간 쉼 없이 대기하며 중증외상환자가 도착하는 그 찰나의 순간,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해 자신의 일상을 기꺼이 포기한 채 현장을 지켜낸 의료진의 처절한 사투가 빚어낸 소중한 결실이다.

#02 환자를 지키느라 무너지는 의료진의 건강

일 년 중 수백 일을 비상 대기과 호출 속에서 밤을 지새우는 살인적인 노동 강도를 감내하는 동안, 정작 타인의 생명을

04:55 / 26:03

■

■

▲



©넷플릭스 <중증외상센터> 스틸컷

지키는 의료진의 몸과 마음은 병들어가고 있다. 의료진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흔한 고질병은 근골격계 질환이다. 특히 혈관 조영술이나 엑스레이 촬영이 필수적인 수술실에서는 방사선 차단을 위해 5~10kg에 달하는 무거운 납 방어복을 착용해야 한다. 이 육중한 장비를 건디며 미세한 환부를 살피기 위해 장시간 목과 허리를 구부린 채 수술에 몰두하다 보면, 목·허리 디스크와 만성적인 어깨 통증은 훈장처럼 따라붙는 고질병이 된다.

생리적 한계를 시험하는 환경 역시 의료진을 병들게 한다.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중증 환자 탓에 끼니를 거르거나, 짧은 시간 내에 음식을 몰아넣는 습관은 만성 소화불량과 역류성 식도염을 일상화시킨다. 여기에 24시간 교대 근무와 불시에 울리는 긴급 호출은 생체 리듬을 깨트려 심각한 수면 장애와 만성 피로의 굴레에 빠뜨린다. 결국 누군가의 골든타임을 지켜내기 위해 의료진은 자신의 건강을 실시간으로 소진하며 버티고 있는 셈이다.

#03 죽음과 마주하는 정신적 무게

육체적 고통보다 더 깊은 상처는 치열한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겪는 정신적인 충격이다. 처참한 사고 현장에서 이송된 환자들을 마주하며, 최선을 다했음에도 생명을 놓쳐야 하는 순간마다 의료진은 깊은 무력감과 죄책감을 느낀다. 이러한 감정의 파고는 결국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나 번아웃 증후군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특히 환자와 보호

자의 고통에 깊이 이입하며 본인도 심리적 외상을 입는 대리 외상 증후군은 의료진의 마음을 소리 없이 무너뜨린다. 이 같은 정신적 무게는 환자의 가장 가까운 곁을 지키는 간호사들에게 더욱 가혹하게 다가온다. 생사의 기로에 선 보호자들의 날 선 감정과 폭언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간호사들은 감정적 소진을 넘어 심각한 우울감과 불안 증세에 시달리기도 한다.

타인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깎아내는 희생은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다. 이를 의료진 개인의 헌신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그들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을 포함한 진정성 있는 정책을 통해 권역외상센터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의료진이 자신의 건강을 지키며 환자 곁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 비로소 더 많은 중증 환자의 골든타임도 온전히 지켜질 수 있을 것이다. 🍵

권역외상센터별 전담전문의 인원 현황(2025년 1월 말 기준)



자료 출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 보건복지부